

그리스-로마 전기 장르로 다시 읽는 마가복음 10:32-52

권영주*

1. 들어가는 말

성서해석에 있어서 장르를 규명하는 일은 중요하다. 장르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장르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 혹은 독해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¹⁾ 서신서를 묵시록처럼 취급해서 읽고, 요한계시록을 역사서처럼 해석한다면 오독은 피할 수 없다. 복음서 역시 마찬가지다. 복음서의 장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문을 해석한다면 불필요한 오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음서의 장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고 여전히 새로운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릿지(R. A. Burridge)의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출판 이후 복음서 장르에 대한 대세적인 견해는 그리스-로마 전기라는 입장이다.³⁾ 흥미

* Asbury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약학 조교수. answer.is@gmail.com.

1) 권영주, “그리스-로마 전기 장르로 다시 읽는 예수의 변모 사건 — 마가복음 9:1-13을 중심으로 —”, 『신약연구』 22:4 (2023), 549.

2) R. M. Calhoun et al., eds., *Modern and Ancient Literary Criticism of the Gospels: Continuing the Debate on Gospel Genre(S)*, WUNT 451 (Tübingen: Mohr Siebeck, 2020).

3) R.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SNTSMS 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판은 R.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4); 3판은 R.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로운 점은, 복음서의 장르가 그리스-로마 전기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지만 복음서의 장르를 본문 해석과 실제로 연결한 사례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리스-로마 전기의 네 가지 장르적 특성에 근거하여 마가복음의 다양한 본문을 해석했다.⁴⁾

본 논문은 그리스-로마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마가복음 10:32-52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2~4장은 그리스-로마 전기의 네 가지 장르적 특성 중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서술하고⁵⁾ 이에 근거해 해당 본문을 해석한다. 5장은 논문의 주요 주장을 요약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2. 그리스-로마 전기의 장르적 특성 1: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

그리스-로마 전기의 가장 중요한 장르적 특성을 꼽으라면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다. 이는 버릿지가 복음서 장르에 대한 해석학적 함의를 논의하면서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⁶⁾ 전기 장르가 다른 장르와 비교하여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특성은 전기의 중심인물인 주인공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장르와 비교해 보면 쉽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인접 장르인 역사와 비교해 보자. 전기와 역사의 장르적 중첩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지만,⁷⁾ 둘 사이를 확연히 구분 짓는 장르적 특성은 한 인

Graeco-Roman Biography, Twenty-fifth Anniversary ed.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8). 이하 인용 페이지는 3판을 따른다.

- 4) 그리스-로마 전기의 네 가지 장르적 특성은 (1)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 (2) 주인공에 대한 인물 묘사를 통해 독자들을 덕스러운 삶으로 초청, (3) 비교/대조의 사용, (4) 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함이다. 장르적 특성을 본문 해석과 연결한 사례로는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 마가복음 1:16-20을 중심으로 —”, 『신약연구』 19:1 (2020), 46-76;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마가복음 2:1-3:6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4 (2020), 201-230;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본 복음서 해석 —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122-143; 권영주, “마가복음 6:14-29에 예수는 부재하는가? — 샌드위치 구조와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 『신약연구』 21:1 (2022), 131-162; 권영주, “수로보니게 여인 에피소드(막 7:24-30) 다시 읽기: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9:4 (2022), 403-434.
- 5) 네 가지 장르적 특성은 모든 본문에 항상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의 장르적 특성이 다른 본문에서는 복수의 장르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 6) R. A. Burrige, *What Are the Gospels?*, 248-250.
- 7) C. S. Keener, *Christobiography: Memory, History, and the Reliability of the Gospels* (Grand

물, 즉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다.⁸⁾ 역사와 전기 모두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두 장르 모두 복수의 사건들과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기와 역사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전기는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전기에 등장하는 복수의 사건들과 인물들은 특정한 한 인물, 즉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동원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기는 사건이 바뀌고 에피소드가 변해도 주인공이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역사는 사건이 바뀌고 에피소드가 변하면 등장인물들이 자연스럽게 교체된다. 이 때문에 역사 장르에서는 한 인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한 사건에서 매번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장르적 특성은 복음서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복음서의 장르가 그리스-로마 전기이고, 전기의 주요한 장르적 특성이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독자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집요하게 씨름한다.”⁹⁾ 다시 말해, 복음서 해석의 우선순위는 주인공 예수라는 인물이다. 복음서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라는 인물 외에 다양한 역사적, 신학적, 해석학적 정보를 제공한다. 복음서 본문은 복음서 전승 과정이나 복음서 배후의 수신자 공동체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또한 복음서 본문은 예수라는 인물 외에도 하나님, 인간, 교회, 종말과 같은 다양한 신학적, 해석학적 주제를 다루기도 한다. 하지만 전기가 주인공인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기록된 장르임을 기억한다면, 유능한 독자는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해석학적 문제들로 곧장 진입하기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서술되고 있는지를 긴 시간 응시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0:32-52는 예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이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예수의 정체성은 두 가지다. 첫째, 예수의 세 번째 수난 예고(10:32-34)와 예수가 온 목적(10:45)은 예수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고난 받는 종임을 시사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세 번에 걸쳐 자신이 수난 받을 것을 예고한다(8:29-32; 9:30-32; 10:32-34). 첫 번째 수난 예고는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8:29). 베드로는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고백은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¹⁰⁾ 베드로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강력

Rapids: Eermans, 2019), 151-257.

8) R. A. Burridge, *What Are the Gospels?*, 130.

9) 권영주, “예수의 변모 사건”, 551.

10)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한 리더십을 통해 외세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였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8:31). 두 번째 수난 예고는 예수의 변모 사건(9:1-13)과 축귀 사역(9:14-29) 이후에 등장한다. 예수의 변모 사건과 축귀 사역 모두 예수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드러내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 변모 사건을 통해 예수가 신적 존재임이 드러났고, 축귀 사역을 통해 예수가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예수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다(9:30). 바로 이때 두 번째 수난 예고가 일어난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9:31). 첫 번째 수난 예고와 유사하게, 예수는 두 번째 수난 예고에서 영광과 승리의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밝히기를 꺼리고, 오히려 자신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온 존재임을 힘주어 말한다. 세 번째 수난 예고가 발화되는 시점 역시 유사하다. 세 번째 수난 예고의 전 문맥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10:23-31). 수난 예고의 전후 문맥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모양새다.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10:28)라며 제자들의 헌신을 강조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영광 중에 오르게 되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다(10:37). 다시 말해, 예수의 애제자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이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세 번째 수난 예고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허를 찌른다.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영광을 논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음을 선포한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뱀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10:33-34). 앞선 두 수난 예고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마지막 수난 예고에서 자신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온 존재임을 다시금 강조한다.

세 번의 수난 예고를 통해 알려진 예수의 정체성은 예수가 자신이 온 목

적을 스스로 밝힐 때 다시 한번 확인된다. 세 번째 수난 예고 후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예수는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눈치 없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수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재차 천명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10:45). 예수가 온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함이었 고 이러한 섬김의 궁극적인 표현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수가 오신 목적이라는 그림 속에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들어설 곳은 없다. 이처럼 마가복음 10:32-52에 나타난 예수의 첫 번째 정체성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자초하는 종의 모습이다.

마가복음 10:32-52에서 주목할 만한 예수의 두 번째 정체성은 맹인 바디매오 에피소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장(비교/대조의 사용)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의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면에서 대척점에서 있는 인물이다. 앞선 세 번의 수난 예고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지만, 바디매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 내부인이라고 여겨지는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부인이라고 여겨지는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¹¹⁾ 그렇다면 바디매오가 알아본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를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을 두 차례 사용한다. 이 명칭은 마가복음에서 여기에 처음 사용되었고 이후에 명시적(12:35, 37) 혹은 암시적(11:10)으로 다시 언급된다. 바디매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올바른 이해¹²⁾인지 아니면 그릇된 오해¹³⁾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이 때문에 각 입장을 서술한 뒤 이 문제

11) 마가복음에서 내부인과 외부인이 바뀌는 현상은 종종 목격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영주,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 마가복음 4:12의 ἵνα 해석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62-164를 참조하라.

12) 예를 들어, D. E. Garland,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20;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291; J. R. Donahue and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Mark, SP 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2), 319; R. A. Culpepper, *Mark,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7), 353; J. Marcus,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762-763.

13) 예를 들어, M. E. Boring, *Mark: A Commentary*,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304-305; H. K. Bond, *The First Biography of Jesus: Genre and Meaning in Mark'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20), 212.

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¹⁴⁾ 하지만 각 입장의 증거와 문맥이 암시하는 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바디매오의 예수 인식은 그릇된 오해라기보다는 올바른 이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문맥이 암시하는 바를 보자. 마가복음 8:27-10:34에서 세 번에 걸쳐 등장하는 예수의 수난 예고를 앞뒤로 감싸는 에피소드(8:22-26; 10:46-52)가 모두 맹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라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¹⁵⁾ 또한 수난 예고를 앞뒤로 감싸는 맹인 에피소드의 인접 문맥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으며, 맹인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에는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다.¹⁶⁾ 하지만 첫 번째 맹인 에피소드(8:22-26)와 두 번째 맹인 바디매오 에피소드(10:46-52)에는 의미 있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이 차이점은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8장의 맹인과 10장의 맹인 바디매오는 중요한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8장에서 예수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처음에는 맹인이 희미한 형체만 볼 수 있었지만 두 번째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8:25) 보게 된다. 불완전한 시력을 거쳐 온전한 시력을 되찾는 과정은 뒤이어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베드로의 예수 인식이 불완전한 것임을 암시한다.¹⁷⁾ 다시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잘못된 확신에 근거한 고백이었고, 이는 이후 예수의 반응(8:33)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간단히 말해,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소유하지 못했다.

10장에서도 맹인 사건은 제자들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8장과 10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8장에서 맹인의 모습은 제자 베드로와 ‘유사한’ 면모를 가진 반면, 10장에서 맹인의 모습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상이한’ 면모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8장에서 맹인이 불완전한 시력을 소유했던 것은 제자 베드로의 불완전한 예수 인식과 유사하지만, 10장에서 맹인 바디매오가 단번에 온전한 시력을 회복한 것은 여전히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¹⁸⁾ 이러한 대조적인

14) 예를 들어,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423-424;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209.

15) A. Y. Collins, *Mark: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rk*,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506.

16)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1991), 252.

17) R. A. Culpepper, *Mark*, 355.

18)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211; J. R. Donahue and D. J. Harrington, *The Gospel of*

모습을 통해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맹인 바디매오의 예수 인식이 그릇된 오해라기보다는 올바른 이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한 것이 제자들의 예수 인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 진일보한 모습일까? 8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은 제자들이 예수를 승리와 영광의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8장에서 예수가 자신이 고난과 유기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8:31)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베드로는 항변한다(8:32). 10장에서 예수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10:33-34),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가 “영광 중”에 오를 것을 기대한다(10:37). 하지만 10장 맹인 바디매오는 제자들과 달랐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통해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¹⁹⁾ 하지만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맹인 바디매오의 메시아 인식은 달랐다. 맹인 바디매오의 메시아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해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라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가진 존재였다.²⁰⁾ “솔로몬의 시편 17-18장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원래 다윗 왕과 같이 군사적 인물이었음을 주목하라. 하지만 바디매오가 부른 이 다윗의 자손은 진노가 아닌 연민으로 오셨고 전쟁용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²¹⁾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메시아가 눈먼 자들의 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사상은 이사야서에 반복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사 35:5; 42:7, 16).²²⁾ 바디매오가 이러한 구약의 반향까지 염두에 두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디매오의 예수 인식이 제자들과 전혀 다른 것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정리해 보자면, 마가복음 10:32-52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예수는 승리와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온 존재이다. 둘째, 다윗의 자손으로 불린 메시아 예수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소유한 군사적 인물이 아니라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향한 연민과 자비를 소유한 인물이다.

Mark, 319.

19) J. Marcus, *Mark 8-16*, 762-763; M. E. Boring, *Mark*, 304.

20) S. E. Dowd, *Reading Mark: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Gospel* (Macon: Smyth & Helwys, 2000), 115-116.

21)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291.

22) D. E. Garland, *Mark*, 421.

3. 그리스-로마 전기의 장르적 특성 2: 비교/대조의 사용

첫 번째 장르적 특성인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은 전기 장르의 고유한 특성인 반면, 두 번째 장르적 특성인 ‘비교/대조의 사용’은 전기 장르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작가들은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인격을 보여 주고 그들의 미덕 혹은 악덕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대조의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비교/대조는 주인공과 다른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다른 인물들 사이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비교는 인물들 사이의 유사점에, 대조는 인물들 사이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춘다. 비교/대조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해당 인물이 비교/대조되는 상대 인물에 비해 특정 미덕을 소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데 종종 사용된다.²³⁾

마가복음 10:32-52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교/대조가 감지된다. 이 본문에서 가장 의미 있는 비교/대조는 예수의 제자들(야고보와 요한)과 맹인 바디매오 사이에서 나타난다. 예수의 제자들과 맹인 바디매오가 비교/대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예수가 이 두 그룹에 동일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²⁴⁾ 예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10:36)라고 물었고, 맹인 바디매오에게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10:51)라고 물었다. 예수는 두 그룹에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둘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영광 중에 오르게 될 때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은 자리를 요구했고, 맹인 바디매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이 두 대답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의 문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자들의 대답의 경우, 마가복음에서 세 번에 걸친 수난 예고가 있었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 직전에 예수의 세 번째 수난 예고가 위치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제자들의 대답은 부적절한 것이고,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영광 중에 차지할 자리나 고민하고 있다.²⁵⁾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에게 찾아와 처음 건넸던 말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10:35). 이들의 말은 6장에서 헤롯이 연회에서 춤을 춘 딸을 보며 흥에

23) 권영주, “예수의 변모 사건”, 564-565.

24) A. Y. Collins, *Mark*, 511.

25) M. D. Hooker,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246.

취해서 했던 무책임한 발언과 묘하게 닮았다.²⁶⁾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6:22). 두 진술의 유사성은 야고보와 요한이 동일하게 경솔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²⁷⁾

반면, 맹인 바디매오의 대답은 예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 준다. 물론 맹인 바디매오의 대답은 표면적으로 볼 때 대수롭지 않게 들린다.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 당연한 일이지 무슨 대단한 대답이겠는가.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는 것’과 ‘이해/믿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²⁸⁾ 맹인 바디매오의 대답은 적절한 것이었으며, 야고보와 요한과는 달리 예수를 향한 이해/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는 것과 이해/믿음이 결부되어 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 주는 본문은 마가복음 8:22-34이다. 2장에서 다루었던 듯이, 이 본문에서 맹인의 불완전한 시력은 베드로의 불완전한 예수 이해를 암시한다. 보는 것과 이해/믿음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8:22-34의 바로 앞 문맥인 8:13-21에서도 나타난다. 예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했다를 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병이어 사건(6:34-44)과 칠병이어 사건(8:1-10)을 통해 떡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님을 이미 경험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없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예수가 한 발언은 보는 것과 이해/믿음이 결부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8:17-18). 이 구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눈은 있지만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부재한 것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보는 것은 물리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깨닫는 영적 시력을 의미한다. 눈은 있지만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티프는 비유에 대한 예수의 발언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막 4:11-12).²⁹⁾ 보는 것과 이해/믿음의 상관성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주요한 본문은 마가복음 15장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승리와 영광의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계속해서 미룬다(막 1:11, 23-25, 34, 43-44; 3:11-12; 5:43; 7:36; 8:29-30; 9:9).³⁰⁾ 승리자로 비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26) R. A. Culpepper, *Mark*, 345.

27) A. Y. Collins, *Mark*, 495.

28)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210-211.

29) 이는 막 4:12의 *ἵνα*를 결과절로 해석한 것이다. 자세한 논의는 권영주,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151-169를 보라.

30) 권영주, “예수의 변모 사건”, 557.

예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중심에 고난, 유기, 죽음이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다(8:31-32).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는 그의 말대로 공공연히 유대인(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총독, 군인)에 의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공개적인 고난과 죽음을 목격한 뒤 이방인 백부장이 했던 발언은 아이러니하지만 보는 것과 이해/믿음의 상관성을 보여 준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15:39). 이방인 백부장은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예수가 아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소유한 자였다.

바디매오의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은 위에서 살펴본 보는 것과 이해/믿음의 상관관계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맹인 바디매오의 고백은 일차적으로 물리적 시력의 회복을 의미했겠지만, 더 나아가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의 회복을 암시하기도 한다. 우리는 2장에서 바디매오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소유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승리와 영광의 존재로 예수를 오해하는 야고보와 요한과 달리, 바디매오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즉 연민과 자비의 존재로 이해하는 영적 시력을 소유한 자였다. 또한 예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맹인 바디매오의 요청이 적실했음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0:52)라는 대답을 통해 확인시켜 준다. 예수의 이 대답은 보는 것과 이해/믿음의 상관관계를 거듭 상기시킨다.

예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 제자들의 대답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맹인 바디매오의 대답은 적절한 것으로 판명 났다. 하지만 제자들과 맹인 바디매오의 대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제자들은 그럴싸한 고백을 했지만 실천이 부재했던 반면, 맹인 바디매오는 자신이 알고 믿는 것을 행동에 옮기는 자였다. 예수는 영광 중에 오를 자리나 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10:38)라고 묻는다. 여기서 잔과 침례/세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³¹⁾ 예수의 질문의 의미와 의도는 명확하다. 자신이 곧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³²⁾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10:39). 예수의

31) 구체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R. H. Stein,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485; J. Marcus, *Mark 8-16*, 752; M. E. Boring, *Mark*, 300-301을 참조하라.

32) J. K. Goodrich, “Rule of the Congregation and Mark 10:32-52: Glory and Greatness in Eschatological Israel”, B. C. Blackwell, J. K. Goodrich, and J. Maston, eds., *Reading Mark in Context: Jesus and Second Temple Juda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8), 171; R. T.

질문에 제자들은 확신에 찬 긍정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들의 고백은 그럴싸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 예수에게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해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14:50)했다.

하지만 맹인 바디매오는 제자들과 달랐다. 바디매오는 자신이 이해하고 믿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자였다. 본문에 따르면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선명한 변화를 보인다. 예수를 만나기 전 그는 “길가에 앉[아]”(ἐκάθητο παρὰ τὴν ὁδόν, 10:46) 있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시력을 회복한 뒤 “길에서 [그를] 따르[는]”(ἠκολούθει αὐτῷ ἐν τῇ ὁδῷ, 10:52) 자로 변화된다.³³⁾ “길가”에 있었다는 표현은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연상시킨다.³⁴⁾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4:15) 것을 의미한다. 비유의 언어를 빌려 말하자면, 예수를 만나기 전 맹인 바디매오는 사탄의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자였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 시력이 회복된 바디매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존재가 된다. 길은 예루살렘으로의 길, 즉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³⁵⁾ 세 번에 걸친 수난 예고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8:27; 9:33; 10:32).³⁶⁾ 하지만 그 길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한다(8:33; 9:34; 10:37). 예수는 고난과 죽음의 길로 제자들을 초청했으나 그들은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를 따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바디매오는 시력을 회복한 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즉시로 따랐다.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야고보와 요한과 달리 바디매오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예정된 길에 기꺼이 합류한 것이다.³⁷⁾

여기서 ‘따르다’(ἠκολούθειω)라는 동사가 쓰인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동사는 부르심과 제자도의 맥락에서 종종 사용된다(1:18; 2:14-15; cf. 3:7; 6:1; 8:34; 9:38; 10:21, 28, 32).³⁸⁾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따르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됨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고난과 죽음의 길로 초청하신 예수의 부르심을 저버린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라는 지위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아니었다. 반면, 고난과 죽음으로 점철된 예

France, *The Gospel of Mark*, 417.

33) D. E. Garland, *Mark*, 421.

34) J. Marcus, *Mark 8-16*, 763.

35) R. A. Culpepper, *Mark*, 267.

36) F. J. Moloney, *The Gospel of Mark*, 211.

37)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292.

38) R. A. Culpepper, *Mark*, 355.

루살렘으로의 길에 즉시로 합류한 맹인 바디매오는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지만 사실 진정한 제자였던 것이다. 또한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앞 문맥에 있는 부자 청년과도 대조되는 모습이다.³⁹⁾ 예수가 진지한 구도자이자 성실한 율법 이행자였던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10:21)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은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못했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10:22) 제 갈 길로 갔다. 이처럼 맹인 바디매오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대조했을 때도, 부자 청년과 대조했을 때도 진정한 제자의 모델로 제시된다.

맹인 바디매오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사건은 마가복음 2장에서 레위가 예수의 부르심에 응해 제자가 된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두 에피소드에서 사용된 동사는 정확히 일치한다. 마가복음 2장에서 알패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가 부르기 전 세관에 “앉아”(καθήμενον; 원형은 κάθημαι) 있었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초청에 응해 그를 “따[랐다]”(ἠκολούθησεν; 원형은 ἀκολουθέω). 이와 마찬가지로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 길가에 “앉[아]”(ἐκάθητο; 원형은 κάθημαι) 있었고 예수를 만나 시력을 회복한 뒤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ἠκολούθει; 원형은 ἀκολουθέω).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따르는 것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었듯이, 맹인 바디매오 역시 따르는 것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로마 전기는 해당 인물이 가진 미덕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인물들과의 비교/대조를 종종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맹인 바디매오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관찰된다. 맹인 바디매오는 야고보와 요한과 주로 대조를 이룬다. 야고보와 요한과 달리, 맹인 바디매오는 예수의 동일한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했고, 올바른 메시아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난과 죽음으로의 길에서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실천을 보여 준 인물이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제자라는 지위를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미미한 존재처럼 보였던 맹인 바디매오가 실상 진정한 제자임이 드러난다.

4. 그리스-로마 전기의 장르적 특성 3: 주인공에 대한 인물 묘사를 통해 독자들을 덕스러운 삶으로 초청

그리스-로마 전기의 세 번째 특성은 첫 번째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 첫 번

39) B. Witherington, *The Gospel of Mark*, 292-293.

째 특성은 전기 장르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었다. 전기는 한 인물, 즉 주인공의 성격과 됨됨이를 드러내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장르적 특성에 민감한 유능한 독자는 해석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한다. 그리스-로마 전기의 세 번째 특성은 첫 번째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간다. 즉, 전기는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를 보여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주인공과 유사한 덕스러운 삶으로 초청하는 장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장르적 특성에 민감한 유능한 독자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도 그것이 만들어 내는 덕스러운 삶의 세계에 동일한 관심을 기울인다. 독자들은 전기를 읽는 순간 주인공의 말과 행동이 만들어 내는 덕스러운 삶의 세계로 초청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은 마가복음 10:32-52의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에게 나아와 좌우편의 자리를 요청했던 장면 직후로 가보자. 위에서 길게 논증했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부적절한 것이었고 예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른 열 제자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10:41). 그들이 화를 낸 것은 자신들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이다.⁴⁰⁾ 즉, 다른 열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수준이다. 급기야 예수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친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제자는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0:42-44). 제자의 삶에 대해 가르친 후에 예수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힌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명확하게 말한 적이 별로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0:45의 진술은 주목할 만하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었고 그러한 섬김의 궁극적 표현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 주는 것이다.

10:42-44는 제자의 삶에 대해 기술하고 10:45는 예수의 삶에 대해 진술한다. 이 둘 사이에 모종의 논리적 관계가 있을까? 안타깝지만 한글 번역에는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둘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보여 주는 접속사 γάρ가 있다. γάρ의

40) B. M. F. van Iersel, *Mark: A Reader-Response Commentary*, JSNTSup 164 (London: T&T Clark, 2004), 335.

해석을 반영하여 10:42-44와 10:45의 내용의 핵심을 재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γάρ)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함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접속사 γάρ는 예수의 삶과 제자의 삶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의 삶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근거요, 모델로 제시된다. 바로 이 지점은 그리스-로마 전기의 세 번째 장르적 특성, 즉 ‘주인공에 대한 인물 묘사를 통해 독자들을 덕스러운 삶으로 초청’을 보여 준다.

우리는 2장에서 10:45의 선언이 주인공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로마 전기의 첫 번째 장르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논증했다. 하지만 전기는 주인공의 삶을 보여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을 주인공과 유사한 덕스러운 삶으로 초청하는 장르다. 접속사 γάρ가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주인공 예수의 삶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예수가 섬기는 삶을 먼저 살았고, (독자들을 포함하여) 그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역시 섬기는 삶으로 초청되고 있다.

5. 나가는 말

본 논문은 그리스-로마 전기의 세 가지 장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마가복음 10:32-52를 다시 해석했다.

그리스-로마 전기의 첫 번째 장르적 특성은 주인공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다. 이 때문에 복음서 장르에 민감한 유능한 독자는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면밀하게 관찰한다. 마가복음 10:32-52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예수는 승리와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온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세 번째 수난 예고(10:32-34; cf. 8:29-32; 9:30-32)와 예수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서술하는 장면(10:45)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은 승리와 영광을 가져오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 받는 종임을 의미한다. 또한 예수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왔고 섬김의 궁극적 표현은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 맹인 바디매오가 사용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적 표현은 예수가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

십을 소유한 군사적 존재가 아니라 약자들에게 연민과 자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려 준다.

그리스-로마 전기의 두 번째 장르적 특성은 비교/대조의 사용이다. 마가복음 10:32-52에서 특히 예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과 맹인 바디매오가 다방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결국 제자라는 지위를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 맹인 바디매오가 사실은 진정한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둘 사이의 대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예수의 동일한 질문(너희에게/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에 대해 야고보와 요한은 부적절한 대답을 했고 맹인 바디매오는 적절한 대답을 한다. 둘째,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 인식(승리와 영광의 존재)은 그릇된 것이고 맹인 바디매오의 예수 인식(다윗의 자손)은 바른 것이다. 셋째, 야고보와 요한은 고백은 그럴싸했지만 행동은 부재했고, 맹인 바디매오는 자신이 믿고 아는 바를 실천했다.

그리스-로마 전기의 세 번째 장르적 특성은 주인공에 대한 인물 묘사를 통해 독자들을 덕스러운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이는 10:42-45에 잘 나타나 있는데, 10:42-44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10:45는 예수의 삶을 진술한다. 이 두 구절의 상관관계는 접속사 γάρ로 명시된다. 즉 예수의 섬기는 삶이 모델 혹은 근거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로마 전기가 주인공의 삶을 묘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독자들을 주인공과 유사한 덕스러운 삶으로 초청한다는 장르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주제어>(Keywords)

복음서 장르, 그리스-로마 전기, 고대 전기,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32-52.

Gospel genre, Greco-Roman biography, ancient biography, Mark 10, Mark 10:32-52.

(투고 일자: 2024년 1월 15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 마가복음 1:16-20을 중심으로 —”, 『신약연구』 19:1 (2020), 46-76.
-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본 복음서 해석: 마가복음 2:1-3:6을 중심으로”, 『영산신학저널』 54 (2020), 201-230.
- 권영주,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에 비추어 본 복음서 해석 — 마가복음 5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122-143.
- 권영주, “그리스-로마 전기 장르로 다시 읽는 예수의 변모 사건 — 마가복음 9:1-13을 중심으로 —”, 『신약연구』 22:4 (2023), 547-576.
- 권영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로마 전기로 다시 읽는 마가복음』, 서울: 감은사, 2003.
- 권영주, “마가복음 6:14-29에 예수는 부재하는가? — 샌드위치 구조와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 『신약연구』 21:1 (2022), 131-162.
- 권영주, “사람들의 완악해짐은 예수가 비유를 사용한 목적인가 결과인가? — 마가복음 4:12의 ἵνα 해석 —”, 『성경원문연구』 51 (2022), 151-169.
- 권영주, “수로보니게 여인 에피소드(막 7:24-30) 다시 읽기: 그레코-로만 전기의 장르적 특성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9:4 (2022), 403-434.
- Bond, H. K., *The First Biography of Jesus: Genre and Meaning in Mark's Gospel*, Grand Rapids: Eerdmans, 2020.
- Boring, M. E., *Mark: A Commentary*,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Burridge, R. A.,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SNTSMS 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Burridge, R. A.,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4.
- Burridge, R. A., *What Are the Gospels? A Comparison with Graeco-Roman Biography*, 25th Anniversary Edition,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8.
- Calhoun, R. M., et al., eds., *Modern and Ancient Literary Criticism of the Gospels: Continuing the Debate on Gospel Genre(S)*, WUNT 451, Tübingen: Mohr Siebeck, 2020.
- Collins, A. Y., *Mark: A Commentary on the Gospel of Mark*,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 Culpepper, R. A., *Mark*, Smyth & Helwys Bible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07.

- Donahue, J. R. and Harrington, D. J., *The Gospel of Mark*, SP 2,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2.
- Dowd, S. E., *Reading Mark: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Second Gospel*, Macon: Smyth & Helwys, 2000.
- France, R. T.,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 Garland, D. E., *Mark*,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Goodrich, J. K., “Rule of the Congregation and Mark 10:32-52: Glory and Greatness in Eschatological Israel”, B. C. Blackwell, J. K. Goodrich, and J. Maston, eds., *Reading Mark in Context: Jesus and Second Temple Judaism*, Grand Rapids: Zondervan, 2018, 170-173.
- Hooker, M. D.,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London: Continuum, 1991.
- van Iersel, B. M. F., *Mark: A Reader-Response Commentary*, JSNTSup 164, London: T&T Clark, 2004.
- Keener, C. S., *Christobiography: Memory, History, and the Reliability of the Gospels*, Grand Rapids: Eerdmans, 2019.
- Marcus, J., *Mark 8-1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27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Moloney, F. J., *The Gospel of Mark: A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2.
- Stein, R. H., *Mark*,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8.
- Witherington, B., *The Gospel of Mark: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1.

<Abstract>

Re-reading Mark 10:32-52 in Light of Genre Characteristics of Greco-Roman Biography

Youngju Kwo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is article re-reads Mark 10:32-52 in light of the three genre characteristics of Greco-Roman biography. The first genre characteristic is a sustained focus on the protagonist. The interpreter sensitive to this genre characteristic will thus observe Jesus the protagonist of the Gospels closely. Mark 10:32-52 highlights two aspects in terms of who Jesus is. First, Jesus is not a glorious or victorious figure, but one who came for suffering and death. This is clearly indicated in the third passion prediction (10:32-34) and the purpose statement of why Jesus came to the earth (10:45). Second, the title “son of David” Bartimaeus used does not refer to a militaristic or political figure with charisma and leadership but one who has pity and mercy on the neglected. The second genre characteristic is the use of comparison/contrast. In Mark 10:32-34, Bartimaeus and the disciples Jacob and John are contrasted in several ways. First, Jacob and John gave a wrong answer while Bartimaeus gave the right one to the same question of Jesus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Second, the disciples’ perception of Jesus as a victorious or glorious one is wrong while Bartimaeus’s perception of Jesus as the son of David is right. Third, Jacob and John might be good at professing but not in action while Bartimaeus is the one who puts into action what he knows and believes. The third genre characteristic is that b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protagonist, the biographer invites readers to a virtuous life. This is clearly indicated in Mark 10:42-45 where Jesus’ life is presented as the basis for his follower’s life.